中 감산에 반덤핑 규제 강화… 철강사, 하반기 실적반등 예고

중국 정부, 철강산업 구조조정 추진
연간 생산량 5000만톤 감산할 듯
국내 철강 수급환경 개선 전망 우세

포스코, 멕시코·인니 등에 수출 확대
현대제철, 인도 거점 판 활로 모색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국내 철강사들이 중국의 철강 감산 조치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저가 수입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강화도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중앙재경위원회를 통해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 3월 양회에서 철강 감산을 선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자국 내 철강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중국의 철강 감산 규모가 지난해 전체 생산량 10억톤의 5%에 해당하는 연간 5000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중국발 저가 제품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철강사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철강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874만톤으로 집계됐다. 다만 주요 수입국은 여전히 중국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감산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경우에는 철강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열연강판 가격 또한 최근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톤당 가격은 83만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강판 가격을 비롯해 전반적인 수요 흐름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8월 중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예비 판정이 예정돼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반덤핑 제소와 관련해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한국에 열연강판을 판매했으며 일본 역시 내수 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정황이 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

철강사들은 수출 확대 전략도 병행하는데 분주하다. 포스코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현지 기후에 맞는 차량용 강판, 건설용 후판, 열연강판, 전기강판 등의 수출을 늘리고 있다. 현대제철은 인도를 아시아 시장 공략 핵심 거점으로 삼아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인도 푸네에서 연간 23만톤의 생산이 가능한 스틸서비스센터를 착공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50% 고율의 품목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 압박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아울러 글로벌 철강 전반의 수요 둔화와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감산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중국 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철강 수요가 뚜렷하게 반등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감산 조치는 철강 제품 공급 과잉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8월 중 나올 반덤핑 예비 제소 결과에 따라 하반기 시장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현재로선 하반기부터 점차 시장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온 'BMS' 국제 사이버 보안 인증 획득

국내 차량용 제어기 중 최초 인증
해당제품 유럽 완성차 업체 공급

SK온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국내 최초로 국제 사이버 보안 인증(CSA, Cyber Security Assessment)을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SK온은 글로벌 시험 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사이버 보안 인증(CSA), 기능 안전 관리 체계(FSMS, Func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레벨3 인증 등 총 두 건의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SK온 BMS는 국내 차량용 제어기 중 최초로 CSA 인증을 받으며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검증 받았다. CSA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를 기반으로 개발·검증된 제품에 부여되며, 이 인증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요건을 충족했음을 공인받았다.

지난 9일 대전 SK온 배터리 연구원에서 사이버 보안 인증(CSA) 등 국제 인증 수여식 행사 후 박기수 SK온 연구개발(R&D) 본부장(오른쪽)과 노진표 TUV라인란드 코리아 기능 안전 및 사이버 보안 아시아 총괄 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SK온은 해당 BMS 제품을 배터리 셀, 모듈과 함께 유럽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실제 차량에 탑재될 이 BMS는 우수한 보안성과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차량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

SK온은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국제 표준 ISO 26262 기반의 기능 안전 관리 체계(FSMS) 레벨3 인증도 획득하며 안전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

FSMS 인증은 차량의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되며 5단계 가운데 BMS 분야에서 레벨3 인증을 취득한 것은 SK온이 처음이다. 레벨3은 설계부터 양산 이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체계를 유지하는 기업에 주어진다.

또한, SK온은 지난 5월, 국제 표준 ISO/SAE 21434 기반의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 레벨3 인증도 취득했다. CSMS 인증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전기·전자 부품의 사이버 보안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화로보틱스, 용접 자동화기술 개발 나서

네덜란드 조선소 로열 IHC와 MOU

한화로보틱스가 네덜란드 대표 조선소 로열 IHC(Royal IHC)와 손잡고 용접 자동화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로보틱스는 최근 로열 IHC와 협동로봇 기반 용접 자동화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 용접 자동화 기술 공동 개발 및 프로모션 ▲ 기술 및 인력 교류 ▲ 정보 및 자료 공유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로열 IHC는 매출 약 7000억원 규모의 네덜란드 대표 조선소 중 하나로 준설선과 해군 정비지원선, 케이블 부설선 등 특수 목적 선박 건조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공정 혁신에 주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로봇·자동화 전시회 '오토매티카(Automatica) 2025' 현장에서 체결됐다. 한화로보틱스는 전시에서 고가반하중 협동로봇 HCR-32를 처음 공개하는 등 기술력을 입증했다. 로열 IHC는 한화 부스에서 다양한 협동로봇 시연을 직접 확인한 뒤 이번 기술 협력을 결정했다. /이승용 기자

LX하우시스, 공동훈련센터 평가 'S등급'

'LX지인 인테리어 아카데미'

LX하우시스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성과 평가에서 인테리어 업계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LX하우시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4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에서 시공인력 양성 교육시설인 'LX Z:IN(LX지인) 인테리어 아카데미'가 S등급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는 이번 평가에서 ▲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실습 중심 전문 인재 양성 체계 ▲교육 수료생 취업연계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신규 시공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해당 과정 수료생들을 협력사 및 대리점으로 취업 연계를 진행,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시공 협력사들의 고민 해결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는 연간 40여개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150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하는 전문 시공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국내 인테리어 업계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실행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LG전자, NCSI 조사 총 16개 업종서 '1위'

LG전자가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총 16개 업종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10년 연속 가전·IT 부문 최다 수상이다.

올해 LG전자가 1위를 기록한 업종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제습기,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TV, 로봇청소기, 무선청소기, 건조기, 정수기,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노트북PC, 가전구독 등 총 1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세탁기와 에어컨은 20년, 냉장고는 14년, 제습기는 11년, 김치냉장고는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 조사 업종으로 추가된 '가전구독'에서도 LG전자는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이혜민 기자 hyem@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난 9일 개막한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에 참가한 현대위아의 전시장 모습. /현대위아

현대위아, 글로벌 화포 제조사 비전 공개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 참가

현대위아가 '글로벌 대구경 화포 제조사' 도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에서 글로벌 화포 제조사로의 성장 방향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지난 9일부터 열린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은 방위사업청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위산업 전시회로 오는 11일까지 관림이 가능하다.

현대위아는 전날 '글로벌 대구경 화포 전문 제조 홍보회'를 열었다. 현대위아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화포 제조 능력과 관련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대구경 화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특히 현대위아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대구경 화포를 생산하며 쌓은 경험과 정밀 가공 역량을 살려 글로벌 화포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